

걸그룹 '블랙핑크', 화려한 美 데뷔 신고식



그룹 블랙핑크가 '레이트쇼'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미국 활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블랙핑크는 지난 11일과 12일(현지 시각) 미국 CBS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와 ABC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GMA)'에 연속 출격하며 현지를 뜨겁게 달궜다. 미국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

'레이트쇼'·'굿모닝 아메리카' 출연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출연한 블랙핑크는 비틀즈의 미국 첫 데뷔 무대 장소로도 유명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에드 설리반 극장(Ed Sullivan Theater) 무대에서 '뚜뚜뚜'를 선보였다.

사회자인 스티븐 콜베어는 "오늘 밤 미국 방송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널리 사랑받고 있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뚜뚜뚜' 무대를 선사한다"고 소개했고, 블랙핑크는 완벽한 라이브와 빛나는 퍼포먼스로 미국 방송 첫 데뷔 무대를 장식했다.

관객들은 무대가 끝나자 뜨거운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스티븐 콜베어는 "봄에 열리는 블랙핑크의 첫 번째 북미 투어에서 블랙핑크를 만나보라"고 직접 홍보에 나섰다.

스티븐 콜베어는 블랙핑크와 악수를 나누고 무대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날의 만남을 기념했다. 연이어 다음 날 오전 블랙핑크는

40년 넘는 역사와 아침 방송 중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완벽한 갈군무가 돋보이는 '뚜뚜뚜' 무대로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흔들었다.

또한 블랙핑크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모두 유창한 영어로 답변해 준비된 '글로벌 걸그룹'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제니는 "4월에 열린 북미 투어가 너무 기대된다"고 전하며 설렘을 드러냈고, 로제는 "최근 우리가 코첼라에 초청됐다. 코첼라에 초청되면 북미 투어를 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팬들 역시 블랙핑크를 보기 위해 에드 설리반 극장과 타임스 스퀘어 앞에 모여 큰 합성과 환호로 블랙핑크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에드 설리반 극장 앞에는 뉴욕의 한겨울 날씨에도 수많은 블랙

핑크의 팬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방송 시작 전부터 극장 앞에 몰려 '뚜뚜뚜', '포에버', '휘파람', '봄비야' 등을 부르며 블랙핑크의 미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더불어 생일을 맞은 로제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에 연일 출연하며 현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블랙핑크는 15일 '굿모닝 아메리카'의 연장선 상에 있는 낮 방송 프로그램인 ABC '스트라한 앤드 사라(Strahan and Sara)'에도 출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또한 블랙핑크는 오는 4월 12일과 19일, K팝 아이돌 최초로 미국 최대 음악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후 4월 17일 로스엔젤레스를 시작으로 4월 24일 시카고, 4월 27일 해밀턴, 5월 1일 뉴어크, 5월 5일 애틀랜타, 5월 8일 포트워스 등 총 6개 도시 6회 공연으로 북미 투어를 나선다.

'증인' 정우성x김향기가 일으킨 잔잔한 파동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진심과 소통, 이로 인한 자유가 빚어낸 잔잔한 파동이 파스하게 휘몰아친다. 영화 '증인'이다. '증인' (감독 이한, 제작 무비락)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정우성)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지폐 소녀 지우(김향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특히 인물을 그리는 방식이 파스하고 정감이 넘친다. 순호는 한때 '민변계의 파이터'로 불릴 만큼 남자는 정의감과 이타심에 휩싸였던 인물이지만, 퍼거슨 병을 앓는 아버지(박근형)와 집안의 빚 때문에 현실과 타협해 대형 로펌에 들어간 40대 중반의 변호사다. 원칙 대신 실리를 취하는 인생이 바람직하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도, 여전히 천성은 따뜻한 정의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이 가득한 인물이다.

퇴근한 아들을 놀라게 하며 허벅지에 숨어 있다가 이를 달성하고 아이처럼 즐거워하다 결국 옷에 실례를 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속옷을 빨다가 "잡아 안 오니 막걸리나 한잔 하자"는 말에 작은 술상을 내놓고, 뉴스를 보며 잔을 기울이는 부자의 모습은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시퀀스다.

그런 지우가 살인사건을 목격했고, 유일한 목격자 지우의 증언에 따라 가사도우미 간병인이 집주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간병인은 좋은 사람이며, 그동안 극진히 집주인을 모셨다고 얘기한다. 순호 또한 소속 로펌의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높

이 위해 해당 사건을 맡은 뒤 보통사람의 견해를 갖고 사건에 접근한다. 이후 순호가 지우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점차 그를 이해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 자연스레 영화의 메시지를 곱씹게 한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가 쌓아놓은 편견의 벽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지한 것인지, 그리고 이 편견은 얼마나 터무니 없이 많은 사실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는지를 그저 덤덤히 보여준다.

그렇기에 제 인생관에 대한 딜레마를 겪고 방황하는 순호에게 지우가 던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은 많은 깨달음을 시사한다. 영화는 초반 살인사건을 제외하곤 자극적인 장면이 없고 오히려 순차적으로 평범한 드라마가 펼쳐지지만 의외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잔잔한 인물의 묘사, 캐릭터 간의 교감은 별다른 극적 설정 없이도 절로 따뜻한 온기를 자아낸다. 또한 실제 살인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엄숙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 신으로 풀어내 현실적인 스타일을 높이는 식이다.

무엇보다 정우성은 맞춤형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캐릭터의 내면을 온화하고 다정한 눈빛과 어감으로 그려내며, 오히려 힘을 뺀 모습으로도 안정적인 힘을 과시한다. 특히 극 말미 그가 울 듯 말듯한 표정으로 애잔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깊고 강렬한 감정의 동화작용을 일으키며 몽롱한 여파를 남긴다. 김향기는 순수하지만 강인한 지폐 소녀로 분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증인'은 그 어떤 기교 없이도 따뜻한 햇살 같은 포근함과, 잔잔한 바람 같은 넉넉함을 안겨주는 '힐링 영화'임엔 틀림없다.

김혜자X한지민·이유리X엄지원, 안방 이색 체인지 시대



단골 소재인 '체인지'가 2019년에도 안방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SBS '시크릿 가든' (2010)을 비롯해 KBS2 '올랄라 부부' (2012), SBS '돌이와요 아저씨' (2016) 등 그동안 많은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영혼이 바뀐다는 소재는 많이 사용돼왔고 그만큼 인기를 얻은 '동행 효과'도 했다. 지금까지도 방송 중인 드라마에서 '체인지' 소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지만 기존과는 다른 점이 있다.

JTBC 월화극 '눈이 부시게'와 MBC 수목극 '봄이 오나 봄'이 그 주인공이다. 두 드라마는 서로의 영혼이 바뀌고 당황함을 느끼지만 이내 익숙해져 간다는 이야기의 기존 작품과 달리 대다수 '체인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먼저 '눈이 부시게'는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 못한 채 잃어버린 여자와 찬란한 시간을 내던지고 무거운 삶을 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무엇보다 작품이 주목 받은 것은 주인공 김혜자 역을 한지민과 김혜자가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극중 혜자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 바람 같은 넉넉함을 안겨주는 '힐링 영화'임엔 틀림없다.

아 하는 인물이다. 스물 다섯살이지만, 시간을 돌리게 되며 남들보다 빠르게 나이를 먹게 된다.

이에 젊은 모습의 혜자는 한지민, 나이가 든 모습의 혜자는 김혜자가 연기를 하게 됐다. 두 사람은 장면이 겹치거나 서로의 운명이 바뀌어 당황스러운 기존의 '체인지'와 달리 한 인물을 함께 연기하는 '체인지'를 그리게 됐다. 짧은 시간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면은 한 사람이지만 외면이 달라진 인물 혜자에 대해 한지민과 김혜자가 펼쳐진 모습에 방송 초반부터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병혼 체인지'가 아닌 '몸 체인지'를 소재로 삼은 '봄이 오나 봄'도 색다르다. 봄이 오나 봄은 전직 인기 배우 출신으로 현재는 국회의원 사모님인 이봄(엄지원 분)과 MBS 보도국 사회부 기자에서 메인 뉴스 앵커 자리까지 오른 김보미(이유리 분)가 우연한 계기로 몸이 바뀌게 되면서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머리부터 발 끝은 물론 성격까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몸이 바뀌며 겪는 이야기가 재미를 주고 있다. 아직 시청률은 아쉬운

성적을 보이지만, 시청자 사이에서 신선한 소재와 이유리, 엄지원의 찰떡 연기가 입소문을 타며 상승세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유리와 엄지원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 '영혼 체인지'와 달리 물리적 거리로 극복할 수 없는 '몸 체인지'에 휩싸인 두 여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하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베테랑 배우인 이유리와 엄지원의 '워맨스' 호응도 극을 유쾌하게 이끄는 요인 중 하나다.

'체인지' 소재가 꾸준히 사랑 받는 것에 대해 한 드라마 관계자는 "한 인물을 두고 갑작스럽게 바뀐다는 '체인지' 소재는 극을 극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장치다. 또 예 드라마와 차별화를 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인기를 얻었기에 식상해졌다. 차별점이 필요했고 '눈이 부시게'나 '봄이 오나 봄'처럼 인기 배우 출연이 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드라마의 '스테디 셀러'가 된 '체인지'다.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김혜자와 한지민이 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다. 채널과 콘텐츠의 확장 속에서 이처럼 시청자도 상상할 수 없었던 허를 찌르는 참신하게 변형된 '체인지' 소재가 보다 환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음력 1월 10일)



▶**소식** 감성 쌓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서 관계나 보증을 조심할 것. 1, 5, 7월생 두 가지 길은 위험이 뒤따른다. 다, 오, 자, 천 성씨는 등, 남쪽이 길하다.



▶**소식**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생각 하는 자세 필요. 기, 오, 자, 표 성씨는 자기 욕심보다는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이루고 키워내라. 언행 조심이 필요한 날.



▶**소식** 혼들리는 마음은 자기 자신만이 움직일 수 있는 법. 기, 오, 자, 천 성씨는 어떠한 유혹의 그림자가 따라 다니다 해도 물리쳐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훗날 웃으면서 옛이야기 할 때 온다. 3, 7, 8월생은 단순함은 억제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소식**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자존심 버리지 말고 대담하게 대처하라. 기, 다, 바, 오 성씨는 판단력을 겸비한다면 하는 일 크게 대성할 수 있다. 1, 2, 3월생은 감정적 피하고 푸른 색으로 단정할 것. 남, 서쪽에 웃음 있겠다.



▶**소식**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 펴고 일어나듯 방향에서 벗어나 포용력으로 받아들여라. 기, 사, 오 성씨는 더이상 남의 것은 손대지 말고 적으면 적은대로 내실을 다짐이 좋겠다. 때를 기다림이 좋을 듯.



▶**소식** 어중간한 태도, 분명하지 않은 처리 때문에 칭찬받을 수 없게 된다. 흑백을 분명히 구분짓는 게 좋겠다. 자신의 잘난 것만 생각했지 내 것 빼앗기는지 모르고 있구나.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히 할 것.



▶**소식** 순간의 선택이 앞날 망칠까 염려된다. 자기 것 자기가 간수할 줄 알아야. 닭, 범, 토끼, 말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여러 곳에 손을 대는 것보다 한 곳에 만 정성 다할 것. 2, 5, 9월생은 구설수 있을 수 있다.



▶**소식** 혼자만 생각하지 마라. 3, 5, 12월생은 부모와 친지가 반대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처신할 수 있다. 바, 오, 흥 성씨는 애정적으로 불안한 상태. 부분간에 사랑 대화로서 풀어감은 어렵지. 지나친 신경은 과민반응 일으키니 여유 가질 것.



▶**소식** 혼자 살고 싶어도 주변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는다. 음악, 연구, 예술, 미술계등으로 재미 볼 수 있다. 3, 6, 12월생은 인과관계를 특별히 잘할 것. 남의 보증, 계약, 문서 관계로 재물까지 나갈 수 있을 듯. 오늘은 둘다리도 꼭 두들겨라.



▶**소식** 안된다고 단정하지 말라. 그동안 부린 것 있으니 얻을 것 또한 많다. 용기가 필요할 때. 1, 4, 5월생은 기, 다, 사, 천 성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에게 진실을 심어줘라. 지난 일 자꾸 생각하면 안된다.



▶**소식** 양보하면서 순리대로 처신해야 할 듯. 1, 4, 10월생은 병이 재발될 수 있다. 자, 오, 흥 성씨는 자신감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기, 바, 오 성씨는 새로운 자와 시간 약속 지킬 것. 나, 사, 천, 흥 성씨로 신경 쓰는 것. 맺고 끊는 길만 필요.



▶**소식**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기, 사, 오 성씨는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잤밥에만 신경 쓰다간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 기년생 미혼자는 고집을 버리고 자신을 발견한다. 이장포가 눈앞에 있으니 갈 곳 찾아라. 녹색계통은 피하는 게 길하다.